

# ‘책 아닌 책’에서의 무한한 책읽기

## 책을 주제로 한 작품세계 구축한 조각가 이홍수씨

책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독특한 예술세계를 보여온 이홍수씨(39)에게 책은 단지 읽고 파내고 뚫고 찢어야 할 사물일 뿐이다. 그러나 이홍수씨의 손을 일단 거치면, 책이라는 물적 존재는 어느새 또다른 독해를 요구하는 상징적 메시지로 드러난다.

“처음엔 단순히 조각을 하기 위한 여러 소재 가운데 하나의 사물로 ‘책’을 상징했습니다. 작품을 구상하고서 막상 물질로서의 책을 접하면서부터 그 안에 담긴 ‘정신’이 내 속으로 들어오는 것 같더군요. 책은 사물이자 곧 정신문화 그 자체라는 걸 또다른 감각으로 느꼈던 거죠. 실제 칼로 찢거나 못을 박는 행위 속에서 마치 영혼이 있는 무언가를 파괴하는 듯한 상실감과 아련한 쾌감을 받았습니다.”

그 자체로서 지식의 상징적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는 책의 속성을 교묘히 부각한 그의 작품은 해석의 여지가 무한하다. 첫 전시회 때 평론가들의 반응은 그만큼 강렬했다.

“다양한 연모를 사용하여 책의 육질을 드러냄으로써 재료가 지닌 본래의 텍스트성을 무화시키고 동시에 조각 본연의 노동의 가치를 확장시켜 나간다.”(윤진섭) 또는 “문명적 역사성의 콘텍스트를 새로운 맥락으로 이끌어내는 데 나름의 방법론적 해석과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윤우학) “개성적 어법으로 과거과



이홍수씨.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균형있는 조형감각”(이재언) 등이 그에게 쏟아진 평론가들의 표현이다.

첫 개인전에서는 주로 못, 동전, 벌레 등 일상적 사물을 고착시킨 작품들이 많았던 반면 두번째 전시회엔 풀, 나무, 흙 등 자연과의 접목이 두드러진다. 표지에 실린 작품 「꽃」 역시 ‘정신문화의 꽃’으로서의 책이미지를 전달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홍수씨의 작품에 대한 자세는 무척 이기적이다.

“메시지를 통해 타인을 설득하기보다는 작



「부드러운 잔디」.

품을 만들어가는 나날의 시간과 그 시간 속에서 얻는 마음의 평안, 끝없이 펼쳐지는 사색의 공간, 이런 것들이 나에게 일차적으로 소중한 겁니다. 이를테면 작업의 노동 그 자체를 즐긴다고 할 수 있겠죠. 책작품을 만들 때 그것을 매일 만지고 펼치고 때리는 다양한 행위속에서 물질이 오히려 나의 정신을 풍요롭게 만들어 줍니다.”

두번의 전시회에서 ‘책작가’로 강렬히 각인된 이홍수씨는 이젠 책에서 떠나고 싶단다. 하지만 순수한 읽기대상으로서의 책은 이홍수

씨와는 가까운 사이이다. 현대물리와 과학책을 즐겨 읽는다. 우주의 근원을 파악하기 위해 하나하나 규명해나가는 명쾌함이 좋다. 그러나 결국 서양과학자들 속에서 “본질의 근원은 파악할 수 없다”는 동양철학의 겸손함을 배운다.

이홍수 씨의 작은 바람은 성남시 세곡동 작업실에 가득한 작품들이 제자리를 찾아 주는 일이다.

—김지원 기자

### 이런 책을 만들었습니다

- 소 설 ▶ 『오에 켄자부로 대표작선집』  
『길을 잃어야 새 길을 만난다』
- 인문 과학 ▶ 『한국인의 조형 의식』  
『한국인, 조센징, 신조선족』
- 미술 서적 ▶ 『레터링의 역사』, 『선물 포장』
- 대학 교재 ▶ 『몬테소리 교육의 이론과 실제』
- 무 협 지 ▶ 『녹정기』, 『춘추필』

신 국 판

4×6배판

### 가 격 사 양 (단행본 기준)

편집 (사식 포함)	인화지 출력시	5,500원
	필름 출력시	6,000원
사 식	인화지 출력시	3,000원
	필름 출력시	4,000원
편집 (사식 포함)	인화지 출력시	8,000원
	필름 출력시	8,500원
사 식	인화지 출력시	4,500원
	필름 출력시	5,500원

### 혹시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 없습니까?

- ① 자기 글을 쓸 수 있는 문장력과 남의 글을 비평할 수 있는 안목
- ② 정밀하고도 신속한 교정·교열 및 대지 작업, 그리고 제작에 대한 이해
- ③ 2급 이상의 타자 속도
- ④ QUARK을 통한 잡지나 사보 레이아웃
- ⑤ Photoshop, Illustrator, FreeHand, NoteWriter, Excel 등의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 ⑥ Fontographer를 이용한, 나오지 않는 한 자 및 지원되지 않는 수식의 해결 능력
- ⑦ 매킨토시뿐 아니라 IBM 워드프로세서에 대한 이해

### 혹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McIntosh 경력 3년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실력을 가진 분을 새 가족으로 모십니다. 성별, 연령, 신체장애 등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 1110-2400 서울 중로구 안국동 139-1 동신빌딩 201호 전화 / 737-2308 737-2309 팩스 / 737-2309

☞ **우리는 가족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

우리는 구성원 모두가 직원인 동시에 주주인 가족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 모든 직원이 주주이고 모든 주주가 직원일 수는 없지만, 자본주의보다는 인본주의를 지향하는 동아리이기를 희망합니다. 만약 출판 및 문화에 관심 있으신 분으로서, 이러한 신념에 동참하여 먼저 주주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전화 주십시오. 작은 비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